

동양 미학을 배경으로 한 도자기 장군의 스토리텔링 키워드 연구

A Study on the Storytelling Keyword of the Ceramic Janggun
the Background of Oriental aesthetics

주 저 자 : 조충휘 (Cho, Chungl Hwi)

콘텐츠융합연구소 대표
ceramist@hanmail.net

Abstract

Janggun ceramics are traditional ceramics made of long and small jars that are a little smaller than jars and hung a little. They are pottery made of heels and round pottery. can see. Among the various forms of ceramics created by our people, the form has not changed for a long time and has been used as the courage in life, and it is the most perfect form. Based on this, this study reinterprets and analyzes the Janggun formation on the principle of three (3), extracts the Keyword meaning of numbers, and redefines them according to the present situation, and applies them to storytelling techniques of modern ceramic products. I want to use it for marketing.

The head of a Janggun means 1 and means pure. Bent means 2, meaning land and tranquility, body means 3, center and perfection, and these three parts are expressed in a unique formative form. Modern storytelling elements are made up of modernly reinterpreted storytelling Keyword with the meaning of numbers 1, 2, and 3. The Janggun consists of three parts: head, heel, and torso,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numbers 1, 2, and 3 in the sense of oriental aesthetic. You can find it like this, The first one is one, positive, sacred, and the second negative, both sides of opposition and harmony. 3 means completion plus 1 and 2. Second, the head of the Janggun formative elements means 1 and means pure. Bent means 2, meaning land and tranquility, body means 3, and interprets human as center and perfection. Third, the formative forms of 1, 2, and 3 together mean the creation and peace of newness, which is expressed as a complete formative form. The Janggun is a unique formative form created by our people and means harmony that comes from the harmony of yin and yang. The meaning of the elements is being reinterpreted based on the stable formativeness, and it shows the possibility of content storytelling by finding them as subdivided Keyword.

Keyword

ceramic janggun, Oriental aesthetics, Storytelling

요약

전통도자기인 장군은 항아리보다 조금 작고 배가 약간 부른 길고 작은 항아리를 뉘어놓은 모습에 굽과 원형의 주구를 달아 만든 도자기로 예로부터 저장, 이동, 보관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분청사기와 옹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창조해낸 여러 도자 조형형태 중에서도 오랜 시간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생활 속의 용기로 사용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장군의 조형성을 동양미학의 삼(三)의 원리로 재해석하고 분석하여 숫자가 의미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여 현대 도자 제품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응용하여 도자 상품제작과 마케팅에 사용하고자 한다.

장군의 머리는 1을 의미하며 순수를 의미한다. 굽은 2를 의미하며 땅과 평온함의 의미를 가지며, 몸통은 3을 의미하며 중심과 완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 부분의 조형형태가 합하여 완성된 독특한 조형성으로 표현된다. 현대 스토리텔링 키워드를 숫자 1, 2, 3에서 재해석된 의미 있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머리, 굽, 몸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장군은 동양 미학적 의미에서 숫자 1, 2, 3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삼(三)이 특별한 수라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으며, 현대적 스토리텔링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첫째 1은 하나이며 양수(+)이고 신성함을 나타내며, 2는 음수(-)이며 대립과 화합의 양면성을 의미한다. 3은 1과 2가 더해진 완성을 의미한다. 둘째, 장군의 조형적 의미를 머리는 1을 의미하며 순수를 의미한다. 굽은 2를 의미하며 땅과 평온함의 의미를 가지며, 몸통은 3을 의미하며 중심과 완성의 의미로 인간으로 해석한다. 셋째, 1, 2, 3의 조형형태가 합하여 새로움의 창조와

평화를 의미하며 이는 완성된 조형성으로 표현된다. 장군은 우리 민족이 창조해낸 고유의 조형형태이며, 음양의 조화에서 오는 화합을 뜻한다. 안정된 조형성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으며, 이를 세분된 키워드로 찾아내어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장군의 개념 및 역사
- 2-2. 동양 미학

3. 장군의 조형성

- 3-1. 옹기 장군의 특성

- 3-2. 장군의 조형미

- 3-3. 동양 미학의 수(數)

4. 현대적 스토리텔링

- 4-1. 장군의 현대적 표현
- 4-2. 스토리텔링 프로세스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전통도자기인 장군은 우리의 생활에 깊이 있게 사용됐으며, 생활 속에 필요한 기(器)로서 오랫동안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며 사용되었다. 장군의 기능뿐 아니라 그 형태의 안정감과 활용성에 있어서 완전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도자기의 사회적 기능은 중요하다. 생활에 쓰이는 용도에서부터 시대의 가치관, 종교,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시대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대에 와서 그 용도가 다른 도구의 발전으로 축소되었지만, 장군은 현대적 조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의 형태와 기능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장군은 독보다 조금 작고 배가 부른 중두리를 뉘어 놓은 형태의 도자기로 작은 형태부터 큰 형태까지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다. 장군은 삼국 시대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특이한 조형성은 변형되지 않으며, 장군은 옛 선조들의 생활 지혜로 만들어졌지만, 조형성만은 현대의 어떤 도자기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는 장군이 가진 고유의 조형성이 과학적, 미

학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조형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동양 미학을 배경으로 장군의 조형성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스토리텔링에 적용하여 제작 및 마케팅에 응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장군의 형태를 머리, 굽, 몸통의 세 부분을 동양의 숫자 삼(三)의 원리를 해석하여 조형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동양 미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장군의 형태에서 스토리텔링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장군의 제작과정, 기능, 형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숫자와 연결되는 의미연결을 도자기 재료에 한정하여 도자기로서의 장군을 연구하고 분청 장군과 옹기 장군을 비교한다. 장군의 조형성을 동양 미학의 숫자개념인 삼(三)의 원리로 대입하여 그 완전한 조형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각각의 요소들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비교하며, 현대에는 장군의 조형성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며 활용되는지 혹은 어떤 의미로 현대 작가들이 장군의 조형성을 바라보는지를 확인하여 장군의 조형성에서 스

토리텔링 키워드를 찾아낸다.

항아리 혹은 병과는 전혀 다른 조형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군은 삼국시대부터 생활 속 용기로 활용되었으며, 오늘날 현대 과학 도구에 밀려 장군은 사라졌지만, 장군의 조형성은 많은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장군의 조형 표현은 우리 역사 속의 3이란 숫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숫자 1, 2, 3의 의미를 분석, 연구하여 그 완벽성을 증명하여, 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안정된 조형성을 새로운 작품 혹은 상품으로서 그 형태를 응용하여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많은 제품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에 응용될 수 있기에 조형성을 1, 2, 3의 숫자와 연결하여 의미를 확인한 현대적 스토리텔링 키워드에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장군의 개념 및 역사

장군은 물, 술, 간장, 된노 등을 저장하거나 나르는 도구로서 몸통은 원통형이고, 중간 부분에 외반된 입구를 부착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한쪽은 평평하며, 다른 한쪽은 둥글게 처리한 형태와 머리, 굽, 몸통으로 각각 성형하여 접합한 두 종류의 장군이 있다.

물장군은 일반적인 장군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넓게 밖으로 나온 형태의 주구는 따로 만들어 부착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릇의 면은 좁고 넓게 구분하였으며, 주구와 접하여 세로로 음각한 선을 돌렸다. 바닥은 평평한 굽이며, 평평한 측면 반대쪽에는 원형으로 돌출된 꼭지(귀대 동이)가 부착되었다. 광택은 없고, 면에 이물 질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이며 회흑색을 띠고 있다. 이는 옹기 장군은 보통 꺼먹이¹⁾ 기법으로 소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저장, 보관, 이동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되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흙으로 그릇을 빚어 소성하여 단단하게 만들어 내는 토기 시대에서부터 발전되어 사용됐다.

기원전 4000년 전의 빗살무늬 토기들은 대부분 항아리 형태의 저장용 기능의 도자기였으며 농경사회에서의 농사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었고 경작에서의 운반은 나무와 도자기 등이 활용되었다. 삼국시대에 장군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질그릇을 거쳐 옹기

로서의 장군은 그 형태가 완성되어 옹기 장군 외에 분청 장군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조선 시대 만들어졌던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 대담하고, 서민적이며, 선의 역동성은 현대적 느낌과 매우 유사하다. 분청사기는 조선 시대 전기 200년 동안 제작되었고 현재에 분청사기는 비교적 거친 회색의 점토에 다양한 형태로 화장토로 장식한 후 녹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말한다.

분청사기는 청자가 갖고 있었던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형태가 수더분하고 마치 숭늉 맞처럼 구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분청사기의 형태와 문양에서 넘치는 박진감을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자유롭고 무엇에도 구애받을 것이 없는 듯하며 자유분방함을 느끼기도 한다.²⁾

고려 시대의 청자나 조선 시대의 백자에 비해 소박하면서도 활달하다. 청자나 백자가 귀족적 기품을 지니는 데 반해 분청사기는 형태나 문양 등이 서민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분청사기 장군은 오랜 시간 한국의 대표적 조형형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머리, 굽, 몸통의 안정감을 주는 장군 형태는 삼(三)의 조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미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조형성을 갖고 있다.

분청 장군의 형태는 주구, 밑단, 몸통의 3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간혹 밑단이 생략되거나 원형이 아닌 가로 2줄로 만들어진 장군들을 볼 수 있고 옹기 장군은 주구, 꼭지, 몸통으로 이루어진 옹기가 많다. 분청 장군은 식생활에 많이 쓰이지만, 옹기 장군은 농사의 물이나 거름을 이동, 저장 기능으로 지게에 올려놓기 편하게 하며, 내용물을 쉽게 빼낼 수 있게 손잡이 기능의 꼭지를 부착시키고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할 때는 평평한 면으로 세워놓았다.



[그림 1] 분청철화삼엽문장군, 15C, 높이 21.5cm 국립중앙박물관

1) 우리나라 전통도자기 기법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고 연기를 입혀 구운 도자기 소성 기법을 칭함

2) 윤용이, [우리의 옛 도자기], 대원사, 1999, p53

2-2. 동양 미학

동양의 미학은 사물에 감정을 넣어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양의 미학은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함을 즐겼으며, 이는 각 문화의 구별과 차이로 볼 수 있다.

박우찬, 박종용은 [동양의 눈, 서양의 눈]에서 서양의 눈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였고, 동양의 눈은 감정을 이입하며, 관찰대상에 관찰자의 생각과 감정이 이입되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동양 미학은 다양한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뿌리내려져 왔다. 이는 전스타일 키워드로 현대에 표현되지만, 동양 미학은 그리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사상, 종교, 윤리, 예술, 생활에 깊숙이 연결되어 아름다움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삼(三)의 숫자로 장군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동양 미학에서 의미하는 하나와 둘 그리고 셋의 미학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양 미학은 감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시각적 표현과 그 시각 속에서 오는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통해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그 해석은 동양적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 살아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되어야 동양 미학의 현대적 해석이 될 것이다.

3. 장군의 조형성

3-1. 옹기 장군의 특성

옹기는 토기에서 고려 시대 질그릇으로 그리고 조선 시대 옹기로 발전된 도자기이다. 옹기는 생활 용기로 잿물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과 잿물을 바른 오지그릇으로 나누어진다. 질그릇은 불씨 통, 화로, 시루, 밥통, 화분과 같이 수분이나 화기를 취급할 수 있는 비교적 가볍고 약한 질그릇과 독이나 항아리 같은 발효 및 저장 용기 등 견고한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옹기로 구분된다.

옹기의 소성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질그릇, 푸레독, 반옹기, 오지, 옹기 등으로 분류한다.³⁾

질그릇은 잿물을 바르지 않은 650 내외에서 소성된다. 윤기가 없고 흙 자체가 소결되지 않아 푸석거리며,

흡수성이 높다. 연기를 입혀 검은 화색을 띠게 된다. 이를 꺼먹이 기법이라 하며, 꺼먹이 기법은 고온소성에도 응용되며, 전통도자기 제작 기법이다, 삼국시대 검은색 토기가 꺼먹이 기법을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환원 소성으로 인한 그릇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푸레독은 질그릇과 같은 방법으로 꺼먹이 기법으로 소성하지만, 소성 온도가 높고 소금을 사용하여 강도가 강한 그릇을 말하며 찜통, 시루 등이 있다. 오지그릇 혹은 옷그릇은 오자기(烏瓷器)의 약자로 백토를 사용하여 오징어를 입힌 후 1300℃ 내외의 소성을 한다. 강도가 강하며 소결된 상태지만, 점차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연히 소멸하여 갔다.

반옹기는 푸레독과 같이 소금을 사용하여 만든 옹기를 말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2] 옹기 장군. 높이 35cm, 개인 소장

옹기는 철성분이 많은 점토를 바탕으로 사용하고 재와 부엽토로 잿물을 만들어 유약으로 사용한다. 소성 온도는 1200℃ 내외의 고온에서 옹기가마에서 10일 동안 소성한 그릇을 말한다. 옹기는 생활용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푸레독, 오지그릇, 반옹기 등의 총칭으로 사용한다.⁴⁾

현존하는 도자기 장군은 청자, 분청, 백자 등도 남아있지만, 대부분 옹기로 만들었다. 이는 장군이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농경사회에서 옹기 장군의 기능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분청 장군이 주병, 유병 등의 생활 용기의 작은 형태로 제작되었다면, 옹기 장군은 저장 및 운반을 위한 큰 형태로 제작되었다. 일반 민중들이 옹기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조정현, 옹기 소론,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87, p36

4) 정병락, [옹기와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1997, p130

3-2. 장군의 조형미

장군은 쓰임에 대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하는 조형 언어이며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장군의 조형성은 다양해지고, 발전한다.

장군의 조형성은 현대조형의 구성 원리인 비례, 변화, 균형, 대비, 리듬, 조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원리가 각각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 작용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아른하임⁵⁾에 의하면 인간의 지각, 특히 시지각은 조직화한 전체를 파악하는 뇌 신경 작용의 관점에서 설명된다고 한다.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도 그 구조적 패턴에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패턴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객관성을 띠게 되며 장군의 형태도 부분의 주된 패턴으로 응용, 변형되고 있다.

모호하고 연관성이 없는 형태를 제거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좋은 형태'를 추구하는 인간의 지각 심리를 연구한 형태심리학은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향상성의 원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⁶⁾

위의 원리로 보면 장군의 조형성은 정확하고 단호하다. 군더더기가 없으며, 간단하지만 단순하진 않다. 장군의 각 요소에는 수많은 기호화 언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장군의 3단 형태

〈그림3〉을 보면 장군의 형태는 주구, 밑단/꼭지, 몸

통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동양 미학의 3의 원리와의 같은 의미이며 3은 양수의 시작인 양1과 음수의 시작인 음2가 최초로 결합하여 생겨난 변화 수이다. 음양의 조화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를 3으로 보며, 이는 음양의 대립에 하나를 더 보탬으로써 완성, 안정, 조화, 변화를 상징하는 수이다. 머리, 굽, 몸통의 안정감을 주는 장군 형태는 각 요소의 균형, 비례, 조화가 완벽하고 한국 정서에 일치하는 조형성을 갖고 있다.

3-3. 동양 미학의 수(數)

동양 미학에서는 3의 수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3이란 숫자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로서는 완성된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군의 형태에서 3의 숫자를 찾기란 간단하다.

장군을 구성하는 형태는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형태를 분류하면 첫째, 머리 부분의 전과 목 부분은 기능적 주구 역할 수행과 동시에 숫자 1과 연결되며 생성과 신성함을 의미한다. 둘째, 굽 부분은 장군을 안정적으로 받치는 밑단의 기능을 하며, 밑단이 없는 웅기는 몸통 밑 부분을 대부분 평평하게 했으며 이는 장군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웅기성형기법인 수레질 기법에 따라서 평저형으로 만들어지고 윗부분에 꼭지를 만들어 접하며 평굽은 장군을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굽은 숫자 2와 연결되며 조화와 완성을 의미한다. 셋째, 몸통은 수레질로 긴 반구 형태로 만들고 납혀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도자기 중 만들어서 납히는 형태는 극히 드물고 몸통은 공간을 확보하여 장군의 중심이 되며 숫자 3과 연결되어 조화, 변화, 완성의 의미가 있다.

장군의 조형성을 삼(三)의 원리로 풀어낸 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3은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3은 길수(吉數)로 생각하고 최상의 수로 여겨져 왔다.

[표 1] 숫자의 동양 미학적 의미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1	하나 양(+)	머리 주구	순수 신성함	하늘 기상
2	둘 음(-)	굽 다리	완성 완벽	땅 평온함
3	셋 1+2	몸통 저장	조화 화합	사람 중심

5)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 예술심리학자, 독일)

6)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출판사, 2008, p126.

〈표1〉을 보면 1은 하나의 수량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수이며, 음양의 이치에서 보면 1은 아무 수와도 섞이지 않은 순양의 수이다.

2는 하나가 아닌 최초의 단위이자 최소의 음수이며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의 둘이 짝하여 하나가 되는 대립과 화합의 의미를 나타낸다.

3은 그 1과 2가 결합해서 만든 수로 음양의 조화가 완성되는 수라고 할 수 있다. 2처럼 짝수로 갈라지지 않고 1처럼 신성함을 파괴하지는 않은 채 변화하여 ‘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⁷⁾

삼(三)의 원리는 장군의 조형성으로 연결되어 안전하고 완벽한 장군의 조형성을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장군이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단일한 형태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다.

4. 현대적 스토리텔링

4-1. 장군의 현대적 표현

한국 현대 도예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추상 도자의 영향으로 도자 조형이 한동안 발전되어 왔다. 이를 경계하여 많은 작가가 전통적 기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한국도자기들을 만들어 냈으며 장군 형태의 변형으로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추상적 조형의식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하나의 장르로 분리되어 현대적 장군의 의미는 확장되었다.

장군의 안정적 조형성은 현대 도예 작가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작가들이 장군의 형태를 변형하고 새로운 활용성을 부여하여 상품에 응용하여 만들기도 한다. 이 조형성은 삼(三)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장군의 형태를 안전하게 응용한다. 때론 생략 혹은 함축으로 새롭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략에서 오는 즐거운 상상으로 표현된다.

조형예술가가 조형 미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형 미술의 특정한 기능에 종속될 수 없는 주체와 외적인 지시 대상보다는 형식이나 양식, 스타일처럼 예술가가 주인으로서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요소의 자율성에 일치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현대 작가의 작품들은 장군의 형태는 응용하되 그

활용성 및 조형성은 작가의 의식적 개념에서 나온다. 객관적 조형성은 인정하되 그 주관적 조형성은 작가 자신의 해석에 주어진다.

도자기는 시대를 반영하는 삶의 양식이고 정신의 반영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서 각 시대와 민족의 감성을 담아내는 사회적 문화체계의 지표로서 존재해 왔다.⁹⁾

현대 작가의 장군 형태의 작품들은 첫째, 장군의 형태만을 응용한 작품, 둘째, 장군의 쓰임을 응용한 작품, 셋째, 장군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지만, 장군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현대 작품들은 작가가 장군의 조형성을 응용하며 작가 노트 혹은 작품설명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부여를 한다. 이 의미는 전통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로 분리할 수 있으며, 숫자가 의미하는 동양 미학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표 2〉 수에서 표현하는 의미 분석

	전통적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
1	천(天), 생성, 높음 신성함, 전체, 태극	독립, 자유, 승리, 열정 능동적, 진취적
2	지(地), 음양, 남과 여 하늘과 땅, 대립, 화합	안정, 평화, 결합, 감성 수동적, 냉소적
3	인(人), 조화, 변화 완성, 안정, 계단	미래, 희망, 환경, 통일 연속성, 완벽성

도예 작가들은 의식 속에 장군의 조형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 작가 내면에 장군 형태의 경험 혹은 어떠한 경로로 그 형태와 감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작품에 표현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의미부여는 삼(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1은 능동, 진취, 독립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는 안정, 평화, 결합 등으로 표현되며, 3은 연속, 미래, 희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군 형태는 변화되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만, 그 원형적 조형미는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현대적 조형성의 의미는 다양한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으며, 숫자와

7)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p18

8)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출판사 2008, p125

9) 임창섭,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신구문화사, 2001, p116

연관된 키워드들은 과거의 의미에서 현대의 의미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진화된 키워드가 정리되며 이 키워드로 새로운 작품 및 상품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다. 이 프로세서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모여 객관적인 대표 키워드로 표현되고 이것을 수와 결합 된 의미로 찾아내는 객관적 데이터 추출이 중요하며 객관적 정보를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표 3] 현대 작가의 장군의 스토리텔링

작품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유희송 작, 2019	오브제 화기	확장 아름다움
 조병학 작, 2018	다변화 물성	호감 기교 청아
 조충휘 작, 2017	군집 조화	개성 다양성
 김은주 작, 2009	물성, 선의 흐름	물 과거/미래
 이경희 작, 2009	구름 풍선	희망 비상

 이훈 작, 2008	잠수함 어머니	깊음 고요함
 박민자 작, 2006	화기 사각	중심 평온함

〈표3〉은 현대 작가의 조형성을 분석한 예로, 작가 스스로가 장군의 형태 혹은 이미지로 만들었지만, 그 장군에는 기능성보다는 작가의 주관적 의식이 함축되어 있으며 현재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각 작품은 장군의 형태에서 유추한 조형성으로 각 요소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되어있지만 1, 2, 3의 요소가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적 가치는 인류학적 성과이며 결과로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미적 가치는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과 고유성으로 드러나야 한다. 존재의 진리는 현존이다. 그러므로 조형 미술에서의 미적 가치는 현재의 순간에 의식 지향성을 가지고 작품으로 현존하게 된다.¹⁰⁾

작가 스스로 지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다양성의 조형 속에서 3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원리로 이미지 구조를 찾아내는 건 그 작품을 이해하고 진행된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유추해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4-2. 스토리텔링 프로세스

장군의 조형적 의미는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기초요소로 활용된다. [표2]의 키워드를 현대적으로 세분화한 [표3]를 보면 1

10)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1998, p16

차적 이미지에서 세분되어 각 숫자가 의미하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 [표2]과 [표3]이 의미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어 디자인과 마케팅의 활용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표 4] 스토리텔링 키워드 추출

숫자	키워드
1 (머리)	개성, 독보적, 중심, 그리움, 차가움, 선택 자만, 인품, 지배, 관심, 생명, 자존감
2 (굽/꼭지)	평온, 뿌리, 안정, 평온함, 믿음, 낮음, 인정 노동, 발전, 개발, 규율, 신뢰, 지원, 토대
3 (몸통)	포괄적, 결과, 포용, 완성, 중심, 나무, 어머니, 너그러움, 창조, 유용성, 융합, 확장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제품에 감성적 이야기를 삽입하여 디자인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이다.

현대사회는 제품에 스토리를 담고 있다. 제품의 스토리텔링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의미부여에 따라 제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감성이 담긴 디자인과 이야기가 매출을 일으키며 제품의 격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각 숫자가 의미하는 키워드들은 제작과정에서 상상과 의미부여로 확장되며 스토리텔링의 키워드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한다.

스토리텔링을 감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키워드 추출과 함께 프로세스의 설계가 중요하다.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예시를 보면 감성적 언어의 선택이 중요하였지만, 이 감성적 언어를 어떤 프로세스로 새롭게 만들어 내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4]는 스토리텔링 제작과정의 프로세스로서 작품 혹은 제품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사용자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이 느끼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숫자에서 의미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단발적이거나 막연한 상황의 연출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스토리텔링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그림 4] 스토리텔링 프로세스

5. 결론

장군은 우리 민족이 창조해낸 여러 도자 조형형태 중에서도 오랜 시간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생활 속의 용기로 사용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장군의 조형성을 삼(三)의 숫자와 연관된 동양 미학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였다.

장군의 조형성은 머리, 굽/꼭지, 몸통의 3부분으로 나뉘며 이는 동양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숫자 1, 2, 3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삼(三)의 원리로 풀어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은 3의 수를 길수 또는 신성수라 하여 최상의 수로 여겨져 왔다. 1은 하나를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수이며, 2는 하나가 아닌 최소의 단위이며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의 둘이 하나가 되는 대립과 화합의 의미를 나타내며 3은 양수의 시작인 1과 음수의 시작인 2가 최초로 결합하여 생겨난 음양이 비율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장군의 조형성은 세 부분이 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조형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삼(三)이란 음양의 완벽한 조화에서 오는 화합을 뜻한다. 이 화합은 장군의 밑단, 주구, 몸통의 합이 3이며, 우리 민족이 사용하고, 사랑했던 장군의 조형성인 것이다. 삼(三)의 조형성은 현대적 조형성으로 첫째, 전통 균형의 원리 둘째, 전통의 해체원리 셋째, 새로운 의식의 원리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새로운 창작 도구로 연구된다.

장군의 조형성을 동양 미학의 숫자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현대 스토리텔링 요소로서 접목되어 새로운 키워드 추출법으로 브랜드 마케팅의 기초요소로 사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우찬, 박종용, [동양의 눈·서양의 눈], 재원, 2016
2.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2012
3. 이주영, [미학연구], 미술문화, 2011
4.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출판사, 2008
5. 임창섭,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신구문화사, 2001
6. 윤용이, [우리의 옛 도자기], 대원사, 1999
7.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1998
8. 정병락, [옹기와와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1997
9.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6
10.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11. 박지숙, 시각기호학적 작품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Vol6 No2, 2005
12. 최인호, 임은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Vol.32, no4, 통권 68호, 2008
13. 조정현, 옹기소론,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제9호, 1987
14. 조충휘, 도자문화산업 활성화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